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음 1월 21일)

제20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지원을”

송 지사, 여야 정치권에 요청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 “정부·GM간 협의를 함께 생산물량·신차배정 보장”

조배숙 민평당 대표에 “여야를 떠나 함께 해결해야”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정당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측면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한국GM과 협의시 군산공장을 제외한 부평과 창원 공장만 계속 가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작년 현대 조선회사에 이어서 지역 차별이고 군산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역 여론을 상세히 전했다.

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서남대 폐교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GM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아 전북경제는 2중·3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가뜩이나 허약한 전북경제는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 지사는 “정부가 한국GM과 협의시 군산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긴밀한 협의와 함께 생산물량 및 신차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북경제를 살리고 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송하진 전북지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이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구성된 ‘한국GM대책 특별위원회’가 8일 군산 현지에서 GM노조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하루

속히 군산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치권의 측면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 화당 대표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인 조배숙 의원을 만나 “한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 문제는 여야를 떠나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한 현안이다”며 “야당에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날 ‘한국GM 군산공장은 전북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해 지난 2월 26일 전라북도와 14개 시장 군수가 모여 채택한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만이 답이다’라는 비상 결의문을 각각 전달했다.

/김진성기자

권력형 성폭력시 즉각 출당

민주당, 피해자 보호주의·불관용 등 3대 기준 정해

당 성폭력 범죄신고·상담센터 17개 시도에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불거진 권력형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 즉각적인 출당과 제명을 하기로 했다.

백해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 ▲불관용 원칙 ▲근본적 해결 원칙을 3대 기준으로 정했다.

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여성폭력방지

법 기본법’ 제정 ▲형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 폐지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 성폭력 범죄신고·상담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자가 공천신청자로 확인된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문제제기가 된 상황에서 확인 없이 복당시키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심사는 15일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대국민 사죄 등 입장 발표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가 8일 김지은 정무부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죄 등 입장을 발표했다.



안 전 지사의 한 측근은 7일 언론에 전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도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안 전 지사 측근은 “충남도청에 갈 일이 없을 것이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도청기자회견 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매각은 없다”... 하이트 전주공장, 맥주 부문 생산 확대

한 때 매각설까지 나돌았던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이 맥주 부문 생산 확대로 공장 효율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주)하이트진로와 전주공장은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하이트 일부 공장 매각과 관련, 지난해 발표한 ‘1개 공장 매각 공시 내용’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

맥주 부문 확대로 현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것.

하이트진로 맥주공장의 경우 전주공장을 비롯해 전국 3곳의 가동 중인 맥주공장 가운데 마산공장 매각이 유력하게 논의된 바 있으며, 전주공장도 고려 대상에 올랐다.

마산 맥주 물량 일부 전주로 이전 대신 판매 꾸준한 소주 라인 늘려 신규 인력채용 따른 일자리 창출

송 지사와 공공 투자확대 협약도

하이트 측은 이날 오전 8시 50분 기해 매각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공시를 전격 발표하고, 이에 따른 회사 이미지 제고와 차별화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쇄신에 나선 하이트진로는 마산공장의 맥주 물량 일부를 전주공장으로 이전하고 대신 판매량이 꾸준한 소주 라인을 늘려 공장효율화 계획에 나서며,

자연스레 전주공장은 맥주 라인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공장은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민의 상실감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도 큰 관심과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오전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울 일정에 앞서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을 방문해 “공공 투자 확대 협약식”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하이라인 구성 등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하이트전주공

장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전북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공정의 발전에 전북도와 지원과 도민의 성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병중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장은 “하이트 전주공장은 전주의 토종 공장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공시로 전주공장의 투자 확대가 커질 것”이라고 밝히고 “전북도 차원의 관심과 도민의 사랑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위기에 절대적인 지원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의 맥주공장은 강원 홍천군 강원공장, 경남 창원시 마산공장, 전북 완주군 전주공장 등 3곳이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에 전북 선수 2명 출전

권상현·이도연 등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에 전북에서는 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7일 전북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평창동계 패럴림픽대회에 권상현 선수와 이도연 선수가 전북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

두 선수 모두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스키 등 2종목에 출전해 실력을 뽐내게 된다.

무주 안성고를 졸업한 권상현(22) 선수는 장애인 동계체전 3관왕을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이다. 이에 자신의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입상권에도 진입한다는 목표이다. /뉴시스

이도연(47) 선수는 정읍서영여고를 졸업했으며,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도 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은 “전북 선수들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것에 매우 자부심을 느낀다”며 “땀 흘려 훈련한 결과가 값진 메달과 좋은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3면 - 한미연합훈련 진행은 어떻게?
4면 - 덕진공원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끝나지 않은 열정,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막

■기간: 3.9~3.18 ■장소: 평창/강릉/정선

올림픽으로 하나된 열정,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이어갑니다!

올림픽 특별 콜센터 1330 | Passion.Connected.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PARALYMPIC COMMITTEE